



제42회 청운축제

지난 5월 16일(목)~17일(금), 학내 구성원들과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와 화합의 어울림 한마당인 청운축제가 진행되었다.

축제 첫날은 이강오 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총동문회장 축하, 총학생회 및 대위원회 소개 후 치어리더 경연대회와 수상이 진행되었다. 1등은 주얼리 디자인과 치어리딩팀이 차지했다. 뒤이어 청운인들의 열띤 호응 속에서 밴드 동아리 '도레미'와 댄스 동아리 'ROAD'의 공연 후 연예인 초청공연으로 엔자민, 범키, 핫플레이스, 바이브의 무대로 마무리되었다.

둘째 날은 개그맨 이상훈을 진행자로 하여 제42회 청운가요제 본선 진출자의 공연과 수상이 진행되었다. 이후 초청가수 먼데이키즈, 김하운, 장덕철, 닐로의 공연을 마지막으로 이틀간의 청운축제가 막을 내렸다.

축제기간 동안 무대 뒤편에서는 푸드트럭과 화장품과학과, 주얼리디자인과, 패션코디·컬러리스트과, 히트메이커의 부스에서 반지 판매, 인샷 스튜디오 등의 다양한 체험이 진행되었다.

/오다영 수습기자

제42회 청운체육대회

지난 5월 13(월)~15(수), 총학생회 '마루'가 주최한 제42회 청운체육대회가 열렸다. 각 학과의 특성을 살린 선수 입장식으로 시작된 청운체육대회 개막식은 이강오 총장의 격려사와 함께 막을 올렸다. 각 학과의 학생들은 3일 동안 열정적으로 승부에 임했다. 그 안에서 극적인 승리를 이끌어 내기도 하고, 경기에서 패했지만 서로를 다정하게 격려하는 모습 등 곳곳에서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종합우승은 응급구조과가 수상했고 2등은 치기공과, 3등은 방사선과가 차지했다. 이밖에도 응원상은 치위생과, 페어플레이상은 의료경영과가 받았으며 베스트드레서상은 뷰티케어과, 퍼레이드상은 장례지도과가 차지하는 등 체육경기 시상 이외에도 다양한 상이 수상되며 체육대회를 마무리 지었다.

한편, 즐거웠던 시간만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도 존재했다.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위한 응원문화가 바로 그것이다.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시작되었던 응원이 선수배간의 위계질서를 확인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학과 응원연합이라는 이유로 응원을 받기위해 자신의 학과 경기가 끝났음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강제적으로 타과 경기 응원에 참여해야 하는 학생들이 불만을 호소하였다. 내년에는 강압적인 아닌 자의적인 응원을 하며 모두가 함께 체육대회를 즐길 수 있길 바란다.

/김유민 기자

INDEX

- 01 2019 청운축제
- 02 2019 나래제
- 03 제42회 청운가요제 수상자 인터뷰
- 05 100주년인데 뭔가 해야하지 않겠어요?
- 06 “나는 전혀 우울하지 않아.” -가면우울증
- 07 낙태의 합법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08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자가진단법
- 10 축구의 매력에 빠져보아요.

2019 나래제



지난 5월 10일(금), 9동 4층 대강당에서 2019 나래제가 진행되었다. 유아교육과는 대전·세종 지역의 만 4, 5세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꿈을 품은 나래제, 꿈을 펼치는 유아’라는 주제의 공연을 선보였다. 이날 공연은 거꾸로쟁이 청구리(교재교구 동아리), 신비의 마법사(음률 동아리), Rock&Roll(신명 동아리), 강아지똥(문학 동아리), 오즈의 마법사(아.사.모 동아리) 순으로 진행되었다. 우리학교 유아교육과는 매년 나래제를 개최하여 지역 아동들에게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주고 있다.

/김유민 기자

학교기업 위탁기관 우수직원 표창



학교기업 및 위탁기관의 직원 중 해당업무를 우수히 수행한 자와 우리 대학 및 해당기관의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해 지난 4월 22일(월) ~ 23일(화)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표창대상으로는 대전광역시자원봉사지원센터(1명),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1명), 대전정부청사 다솜어린이집(3명), 대전시청어린이집(1명), 목동어린이집(1명)이 선정되었다. 앞으로도 우리 학교와 위탁기관, 학교 기업의 산학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김유민 기자

업무 협약식



일루미나코리아

지난 4월 16일(화), 9동 2층 대회의실에서 이강오 총장과 신진섭 HRD사업단장 등 임상병리와 교수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일루미나코리아와의 산학협력 업무체결이 진행되었다. 일루미나코리아는 세계 최대 유전자 분석장비 기업으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이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한다.

/정나라 기자

제39회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학생 간담회



지난 4월 15일(월), 9동 2층 부속실에서 ‘제39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이강오 총장 및 장애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는 장애학생들의 불편사항 및 지원요청 사항 등을 경청하며 진행되었다. 이강오 총장은 학생들에게 격려의 악수를 보내며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전했다.

/박수연 기자

약손명가 대표 특강 및 발전기금 전달식



지난 5월 3일(금), 9동 2층 부속실에서 발전기금 전달식이 있었다. 약손명가 김현숙 대표는 발전기금 500만원과 본인의 저서 『좋아하는 것 99%보다 잘하는 것 1%에 승부를 걸어서』를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특강은 ‘성공하는 미용인’이라는 주제로 E첨단 강의실에서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정나라 기자



소상공인진흥회

지난 4월 30일(화), 9동 2층 대회의실에서 우리 학교와 대전 충청지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간 업무협약식이 진행되었다. 협약식에는 이강오 총장, 김원수 대외협력처장, 소상공인진흥공단 이광노 본부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협약은 상호협력과 발전을 위해 진행되었고, 재학생들의 취업 및 창업에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된다.

/박수연 기자



대전광역시의사회

지난 5월 9일(목), 대전광역시의사회 회의실에서 우리 학교와 의사회간 상호협력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진행되었다. 협약식에는 이강오 총장, 이병기 부총장, 김원수 대외협력처장이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과 함께 참석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대전광역시의사회와 우리 학교 보건계열 학과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한 발전이 기대된다.

/김지은 기자

INTERVIEW

제42회 청운체육대회 종합우승

| 응급구조과 학회장



Q1. 이번 체육대회 종합우승 소감이 어떠신가요?

작년에 이어 연속으로 우승을 하게 되었는데 막상 우승을 하니가 기분이 남다르네요.

Q2.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승을 하셨는데, 우승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명 한명의 능력보다는 모두가 단합하여 응원을 했기 때문에 응원에 힘입어 우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Q3. 기억에 남는 종목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특전의무부서관과와 발야구 경기 중 마지막 공격에서 투아웃된 상황을 1점차로 역전하여 우승을 차지하게 된 경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Q4. 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좋았던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1,2,3학년 다 같이 단합할 기회가 없었는데 체육대회를 통해서 단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어려웠던 점은 체육대회에 참여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이나 이탈하여 쉬려고 하는 학생들을 통제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Q5. 체육대회를 통해 느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서 우리 응급구조과는 열정이 넘치고 단합이 잘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Q6. 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수고해준 동기들과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응급 학회장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저를 믿고 잘 따라와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 김기중 수습기자

제42회 청운가요제 빛나는 주인공들!

지난 5월 17일 청운 축제 속에서 우리학교 신문방송국이 주최한 청운가요제 본선이 진행되었다. 예선은 지난 4월 29일 치러졌고 52팀중 11팀이 본선에 진출하여 공연을 하였다. 본선 수상은 당일 공정한 심사를 거쳤다. 수상자는 대상 김나영(방송콘텐츠과), 이상훈(작업치료과), 금상 안혜진(간호학과), 은상 정충만(사회복지과), 동상 박나영(응급구조과), 인기상 오현석(치기공과), 강보성(환경보건과), 어울림상 권성진(의무행정과), 신민규(안경광학과), 이은혁(간호학과), 하예림(간호학과), 고다영(작업치료과), 우선주(유아교육과), 김하은(유아교육과)이다. 청운가요제에서 자신의 끼를 보여주고 청운인들과 함께 즐겨준 모든 수상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대상.

김나영_방송콘텐츠과
이상훈_작업치료과
♪ 이적-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1. 대상 축하드립니다! 대상을 수상하신 소감말씀해주세요.

이상훈: 처음에 서로 예상을 못했다가 당연히 어울림상일 줄 알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대상을 받게 되어 감사드릴 뿐입니다.

김나영: 본선에 올라가서 참가곡을 예선 때와 달리 바꾸려다가 상황이 안되어서 이 곡으로 어울림상을 목표로 준비했는데 대상을 받게 되어서 머리에 충격을 받은 기분이었어요. 대상에 호명되고 계속 진짜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했어요.

2. 키보드를 직접 연주하여 공연을 하셨는데 힘든 적은 없었나요?

김나영: 사실 함께 참가한 이상훈 오빠와 같이 교내 밴드동아리 '도레미' 활동 중이에요. 청운축제 첫 날 도레미 공연이 있었는데 그 공연 연습을 더 하다보니까 청운가요제 본선에서 틀리지는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다행히 본선무대에서 실수는 없었어요.. (웃음)

3. 이 곡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이상훈: 처음부터 키보드 연주도 포함한 무대를 준비해야하니까 잔잔한 노래를 해야겠다 싶어서 나영이가 칠 수 있는 곡들을 하자 했어요. 그래서 나영이가 준비한 노래 중에 제가 아는 곡은 이 곡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하자. 괜찮을 것 같아!" 하면서 이 곡을 고르게 되었고 예선 통과도 기대 안했었는데 대상까지 받게 되어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4. 두 분이 어떻게 만나 청운가요제를 나오게 되셨나요?

이상훈: 일단 저랑 나영이는 교내 밴드동아리 '도레미'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청운가요제 이야기는 처음부터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청운가요제 공고도 중간고사 보는 주에 확인해서 그 때 같이 나가자고 결정한 후 예선은 준비한지 3일 만에 나왔어요. 본선에서는 원래 곡을 바꾸려고 했는데 서로 '도레미' 공연 준비에 바빠서 그냥 이번에는 좋은 경험으로 끝내자 생각해서 이 곡만 연습했는데 그게 오히려 플러스가 된 것인지 좋은 결과를 받은 것 같아요.

5.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이상훈: 청운가요제 무대에 올라간 것만으로도 감사드리고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줄 진짜 생각도 못했고 모든 것에 감사드리요. 이런 기회를 주시고 이런 큰상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나영: 연습을 많이 못해서 걱정되었는데 오빠가 이번에는 좋은 경험으로 참가하자고 해서 편한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본선까지 올라가게 되어 정말 기뻐고 또 대상까지 수상하여 청운가요제에 감사함을 느끼고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콘과 사랑해요! ♥

금상.

안혜진_간호학과
♪ 윤하-비밀번호 486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큰 무대에 설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사실 '청운가요제'는 축제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런 무대에서 금상이라는 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정말 영광이고 졸업하기 전에 뜻깊은 무대를 가질 수 있게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사실 4학년이라서 바쁜 와중에 노래를 준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노래방에서 꼭 부르는 애창곡 중에 축제에서 즐길 수 있고 제가 잘 부를 수 있는 곡을 선택하여 불렀습니다. 이번 청운가요제가 3번째 도전인데 그 전 2번은 예선에서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기대도 안하고 있었는데 예선도 붙고 금상까지 탔잖아요. 우리학교에 숨겨진 노래 잘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 도전해보면 좋겠어요!



은상.

정충만_사회복지과
♪ 엠씨더맥스-사계

학교를 한 번 휴학했다가 복학해서 학교 행사에 참여할 일이 많이 없었는데 청운가요제를 참가해보면 학교를 재밌게 다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했어요.. 청운가요제가 예상보다 정말 재미있었구요. 솔직히 상 탈 것을 예상을 못했지만 받게 되어 좋았습니다. 사워하면서 들었던 노래를 반복적으로 듣다가 좋아서 이 곡을 청운가요제에서 부른 것 같아요. 본선에 나간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도 학교생활 중에 꼭 한 번은 나가보고 싶다는 사람이 많았었다고 응원해 주더라구요. 저도 굉장히 떨렸었는데 눈 딱 한번 감고 참여해보면 재밌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학생들에게도 한 번쯤 참여해보는 걸 추천해요.



동상.

박나영_응급구조과
♪ 거미-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예선 때 실력자분들이 많으셔서 본선 진출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높은 상까지 타서 아직까지도 실감이 안납니다. 이렇게 높은 상 주셔서 심사위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선 참가곡은 친구가 중학교 때 처음 노래방에서 불러줘서 알게 된 곡이자 저에게도 애창곡이 된 곡으로 청운가요제에 참여하여 자신 있게 부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노래 부를 때 호응해주신 학생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 번 이렇게 높은 상 주신 심사위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대상을 노리겠습니다!



/김지은 기자

당일치기로 다녀올 수 있는

국내 여행지!

한 학기를 무사히 마치고 여름방학을 맞이한 보건대 학생들에게 해외 여행지와 비교해도 손색 없는 아름다운 국내 여행지를 소개한다.

방학동안 국내여행을 통해 또 한 학기를 보낼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은 어떨까?

-강원도 춘천 '제이드가든 수목원'

'숲 속에서 만나는 작은 유럽'을 모토로 한 제이드가든은 자연의 계곡 지형을 그대로 살려 화훼나 수목, 건축 양식과 건물 배치 등을 유럽풍에 맞추었다. 강렬한원색 보다는 수수하고 은은한 멋을 뽐내는 화훼류 위주로 채워졌으며, 계곡의 우거진 산림 그대로의 멋을 살린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나의 휴양스타일은?

햇볕이 쨍쨍해지고 날이 더워진 요즘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사람마다 더위를 이겨내는 법이 다르듯이 휴양을 즐기는 스타일도 다릅니다. 오늘은 더위를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야외 휴양지와 실내 휴양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스타일
휴양하면 야외지!



#뻗속까지 시원해지는 계곡

더위를 내는데는 시원한 계곡에서 다같이 모여 고기를 구워먹고 수박을 쪼개먹는 것 아닐까 싶다. 나무 그늘과 서늘한 계곡물이 여름을 잊게 만드는 것 같다.

더운데 어딜가 스타일

시원한 실내가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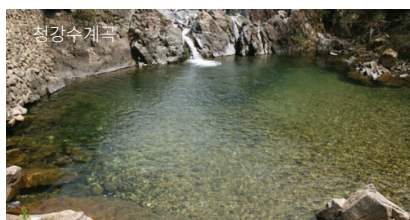


#호캉스

어딜 가도 덥고 힘든 분들을 위한 최고의 휴양지는 호캉스가 아닐까 싶다. 호캉스는 호텔+바캉스의 합성어로 휴가를 호텔에서 즐기는 것을 뜻한다. 진정한 휴가는 여행이 아닌 휴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휴가를 호텔에서 보내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그에 따라 많은 국내 호텔에서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다. 호캉스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각종 음식점, 수영장, 스파 등 다양한 시설이 갖춰진 호텔 안에서 많이 움직이지 않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다.

호캉스 추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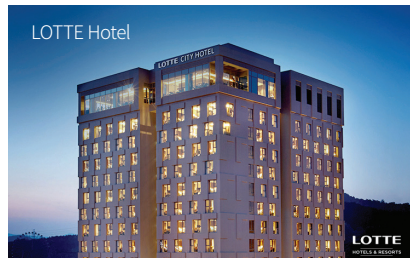
1. 롯데시티호텔(대전 유성구 도룡동: 2인 기준 10만원대) - 주변에 엑스포가 있어 야경이 좋은 호텔로, 꼭대기 층에는스카이 라운지가 있어 식사를 하며 멋진 야경을 즐길 수 있다.



대전 근교 계곡 추천

- 1. 청강수계곡**(충남 금산군 진산면) - 근처에 펜션이 있고 평상이 물위에도 있어 좀 더 시원하고 색다르게 즐길 수 있다.
- 2. 쌍곡계곡**(충북 괴산군 칠성면) - 수심이 깊은 곳부터 낮은 곳까지 있어 어른 아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다.

방도 1인실부터 단체실까지 다양하게 있어 최근 인기를 끄는 호텔 중에 하나다.



2. 부티크 호텔 락히(대전 서구 둔산동: 2인 기준 8만원대) - 모던하고 세련된 인테리어가 매력적인 곳으로, 객실마다 블루투스 스피커, 전신 욕조, 입욕제 등 다양한 서비스가 마련



-충청남도 서산 '용비지'

외국에 온 듯한 착각이 드는 서산 용비지는 사계절 내내 그림 같은 풍경을 자랑하며 수면에 투영된 배경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또 용비지에서 작은 언덕을 넘어가면 광활한 목장 풍경과도 만날 수 있는데, 대관령목장처럼 잘 가꿔진 곳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멋이 돋보인다. 정신없던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힐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전에 없던 인생샷을 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경기도 파주시 '헤이리 예술마을'

헤이리 예술마을은 문화와 예술의 창작, 전시, 공연, 축제, 교육이 모두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예술문화 마을이다. 각종 미술작품들이 자연의 생생한 숨결과 어울려 그대로 또 하나의 거대한 예술품이 되는 헤이리 예술마을은 새로운 분위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강력 추천한다. 안과 밖이 구분되지 않는 건물, 지형을 그대로 살려 비스듬히 세워진 건물, 사각형의 건물이 아닌 비정형의 건물 등 각양각색의 건축물들이 개성을 뽐내며 서 있다. 자연이 만든 굴곡 그대로 따라 산책하다 재밌는 건축물을 만나면 카메라에 담고, 그러다 마주치는 미술관에 들어가 작품을 감상하면 된다.



-전라남도 보성 '대한다원'

보성에 있는 대한다원은 녹색의 카펫을 깔아놓은 듯 그림 같은 녹차밭이다. 녹차밭 사이를 지나 해발 350m 봉우리에 오르면 저 너머 바다까지 펼쳐지는 풍경이 장관이다. 드라마 '여름향기', '푸른바다의 전설', '역적' 촬영지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한껏 느낄 수 있다. 보성의 녹차밭을 가장 제대로 즐기는 방법은 해 뜨기 바로 전 이른 새벽에 방문하는 것이라고 한다. 떠오르는 붉은 태양 아래 싱그러움 녹차 향을 맡으며 힐링해보는 것은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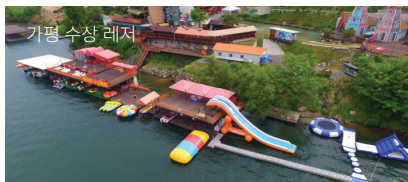
-경상남도 남해 '금산 보리암 & 금산산장'

산과 들과 바다가 모두 아름다운 남해이지만, 그중 으뜸으로 꼽히는 금산이 있다. 청량한 상주는 모래비치 뒤로 고즈넉이 자리 잡은 마을, 그리고 발아래 펼쳐진 푸른 능선이 한눈에 보이는, 신선이 살 것만 같은 금산은 백두산, 금강산과 함께 조선의 9대 명산으로 손꼽히기도 했다. 남해하면 빠질 수 없는 곳, 보리암도 바로 이곳 금산에 위치해 있다. 남해의 정취를 가득 담은 보리암만의 분위기는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게 만든다. 열심히 산을 올라 도착한 보리암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정겨운 분위기의 금산산장이 나오는데, 마치 구름 위에 올라선 것만 같은 몽환적인 느낌을 주는 곳이기도 하다. 그 곳에서 컵라면을 골라 남해가 한눈에 보이는 명당자리에 앉아 탁 트인 경치와 함께 맛보는 라면은 평생 기억에 남을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정나라 기자

#수상레저

좀 더 익사티팅한 휴양을 원한다면 바다나 호수에서 수상레저를 즐기는 것은 어떨까? 스릴있는 수상레저들을 즐기다 보면 더위는 어느새 잊게 된다.



수상레저 추천

1. 가평빠지 수상레저 - 수상레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가평이 아닐까 싶다. 수상레저가 패키지로 마련되어 있어 다양한 놀거리를 즐길 수 있다.

2. 스킨스쿠버(알프스레포츠:대전 중구 오류동) 익사티팅하고 다이내믹한 고급 스포츠를 전문적으로 강습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스킨스쿠버와 스노우쿨링, 오픈 워터 체험을 주로 하고 있다.



2. 바래키기

(대전 대덕구 비래동) - 분위기 좋은 대전 최초의 Pool카페, 계족산 산자락 밑에 있어 주변이 한적하고 선베드와 테라스도 있어 힐링하기 좋은 카페이다.



/박수연 기자

호국보훈의달 6월

100주년인데 뭔가
해야하지 않겠어요?

현충일, 6·25 한국전쟁, 6·29 제2연평해전이 모두 일어난 6월을 기념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한 달.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올해는 3·1 운동, 4·11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좀 더 특별하게 보내는 것은 어떨까? 이번 6월을 의미있게 기억할 수 있는 작품들을 지금부터 소개한다.



항거 유관순 이야기

Moive

영화 <항거: 유관순 이야기>는 1919년 3월 1일 서울 종로에서 시작된 만세운동 이후, 고향 충청남도 병천에서 ‘아우내 장터 만세운동’을 주도한 유관순이 서대문 감옥에 갇힌 후 1년여의 이야기를 담았다.

개봉일자: 2019.02.27.(수)

감독: 조민호

출연: 고아성(유관순 역), 김새벽(김향화 역)

김예은(권애라 역)



예술원 제6회 정기공연 (대관공연)

위대한 단재 -대전

Musical

창작뮤지컬 “위대한 단재 (丹齋)” 신채호_(사)한빛사랑 잊혀진 역사와 위인들이 살아 숨 쉬던 시대를 그리다.

단재(丹齋) 신채호 순국 83주년, 그리고 3.1 운동 ·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대한의 국토를 지키기 위해 피 흘려 죽어간 수많은 이름의 무게를 돌아본다.

· 기간: 2019.06.13(목) ~ 14(금)

· 공연장소: 대전예술의전당 아트홀

· 티켓정보: R석 60,000 / S석 50,000 / A석 30,000 / B석 20,000

· 소요시간: 140분(인터미션 20분 포함)



이몽

Drama

일제 강점기 조선을 배경으로 일본인 손에 자란 조선인 의사 이영진과 무장한 비밀결사 의열단장 김원봉이 펼치는 첩보액션 드라마

MBC 2019.05.04 ~ 방영 중 (토) 오후 09:05

등장인물: 이요원(이영진 역), 유지태(김원봉 역)

임주환(후쿠다 역), 남규리(미키 역)



2019 경기도립극단 특별기획 연극

꽃 없는 살수 -수원

Theater

1919년 3·1 운동 발발 이후 경기도 화성(당시 수원군)지역에서도 발안장 만세운동이 벌어진다. 시위과정에서 일본 순사 1명이 죽는 등 피해가 발생하자 일본군 보병대가 제암리 마을을 찾아가서 마을의 성인 남자들을 교회에 모아놓고 대량 학살하는 일이 발생한다.

F.W. 스코필드 박사는 제암리를 방문하여 전통례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에게 4월 15일 제암리에서 있었던 잔인한 학살에 대해서 듣게 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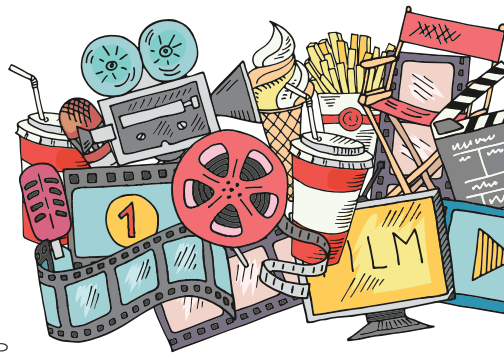
· 기간: 2019.06.21(금)~23(일) ·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장

· 티켓정보: R석 30,000 / S석 20,000 · 소요시간: 100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100년의 시간이 흘러 우리의 기억 속에서 그들은 희미해지고 있다. 위의 작품들을 감상해 보며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아낌없이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선조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겨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오다영 수습기자

여름방학을
넷플릭스와
함께 ♪

넷플릭스란?

인터넷(NET)과 영화(Flicks)라는 의미로 세계 최대의 유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이다. 한달에 적게는 9500원을 내면 원하는 TV 프로그램과 영화를 볼 수 있다. 넷플릭스의 강점은 넷플릭스의 다양한 콘텐츠를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모든 스크린에서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던패밀리, 셜록, 슈츠 등 영미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으며 루머의 루머의 루머, 굿플레이스, 하우스 오브 카드 등 넷플릭스 자체 제작 오리지널 콘텐츠가 있다는 점이다.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방구석 플레이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넷플릭스’의 핫한 작품들을 소개한다.

▼ 굿플레이스



굿플레이스는 생전에 착하게 산 사람들만 올 수 있는 굿플레이스에 실수로 떨어진 주인공의 이야기이다. 배드플레이스로 쫓겨나지 않으려고 정체를 숨기며,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소울메이트인 생전 윤리학 교수였던 치디에게 윤리를 배우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종교적인 색을 담지 않고 사후세계와 선과 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매력적인 작품이다.



◀ 루머의 루머의 루머

장르는 하이틴, 미스터리 드라마이며 청소년 관람불가등급이다. 자살한 해나가 녹음한 카세트 테이프가 클레이에게 배달되고, 이 테이프에는 친구가 자살한 13가지 이유가 녹음되어 있다. 녹음된 내용을 들으며 비밀을 파헤쳐가는 스토리로 학교폭력과 자살이란 어려운 주제를 잘 풀어낸 높은 작품성의 드라마이다.

▶ 버드박스

미지의 재앙으로 눈을 뜨고 그것을 본 모든 사람은 광기에 사로잡혀 살인을 저지른다. 세상이 망해가는 상황에서 주인공은 두 아이를 데리고 집밖으로 나서고 안전한 곳을 향해 모험을 떠난다. 인류 문명이 거의 멸망한 뒤의 세계관을 배경으로 삼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로 SF장르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한다.



▶ 킹덤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한국드라마로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좀비 미스터리 스릴러이다. 조선시대 배경의 좀비물이라는 점과 주지훈, 배두나, 류승룡 등 유명배우가 출연하여 화제를 모았던 작품이다. 역병으로 위기에 처한 조선을 구하는 세자의 이야기를 담은 좀비물로, 무더운 여름 더위를 날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TV를 이용해 미디어를 즐기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스트리밍 플랫폼(OTT)을 이용해 미디어를 즐긴다. 장소에 제한을 받는 TV와 달리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느 장소든지 미디어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스트리밍 플랫폼의 대중화 이유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중적인 스트리밍 플랫폼은 넷플릭스와 왓챠플레이가 있다. 후발주자로는 디즈니의 스트리밍 서비스인 훌루(HULU)와 SK텔레콤 및 지상파 3사가 손잡고 계획 중인 폭(POOQ)과 옥수수(OKSUSU)를 합친 새로운 서비스가 출시된다고 한다. 다양한 스트리밍 플랫폼의 경쟁 속에서 자신의 기호에 맞춰 미디어를 즐기는 현명한 방구석 플레이어가 되자.

/김기중 수습기자

허위조작과 선통 마녀사냥



‘삼인성호 (三人成虎)’

세사람이면 호랑이도 만든다 = 거짓된 말도 여럿이 말하면 참인 것처럼 여겨짐

마녀사냥이란, 15세기에서 18세기까지 아무 죄 없는 사람을 마녀로 몰아세워 화형을 시킨 행동에서 유래하였다. 150년 동안 마녀사냥으로 인해 화형당한 사람의 수는 적어도 3만명 이상 이었다고 한다. 현대사회에서도 마녀사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홍보 마케팅, 언론 플레이 등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인지하지 못할 만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사례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240번 버스사건’ 이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서울 240번 버스의 운전기사가 어린이가 혼자만 먼저 내린 것을 확인하고도 뒷문을 열어 달라는 엄마의 요구를 무시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인터넷에 올라온 잘못된 목격담이 ‘가짜 뉴스’로 변질되었고, 33년간 버스운전을 한 성실한 가장은 ‘파렴치한 버스기사’로 낙인이 찍히게 되었다. 많은 누리꾼들은 해당사건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음에도 240번 버스기사를 처벌하라며

버스조합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 하루 2,000여 건의 항의성 민원이 폭주하였고, 서울시 조사 결과 버스기사의 유기방조 혐의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여론은 이틀만에 잠잠해졌다. 사건 후 그는 “댓글을 쓰기 전에 딱 3일만 지켜보고 생각해봅시다. ‘온라인 시제’는 조금 천천히 가면 좋겠습니다. ‘속도’보다는 ‘진실’이 중요하지 않나요?”라고 전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유명 샵브사브전문점 ‘채선당’ 사건이다. 전국에 270개 가맹점을 보유한 채선당이 휘청거린 건 인터넷에 미확인 정보가 퍼지면서부터였다. 회원수가 170만 명에 육박하는 임신·육아 카페에 “종업원에게 배를 발로 차이는 등 폭행을 당했다”는 임신부의 글이 올라왔다. 전국적인 불매운동의 시발점이 되었고, 사건발생지로 지목된 지점에는 5초마다 욕설전화가 왔다고 한다. 경찰조사 결과, 종업원의 폭행의혹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많은 욕설에 시달린 가맹점주는 급하게 가게를 정리하고 시골로 농사를 지으러 내려갔다. 그는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이 암 투병을 하면서도 가족을 위해 일궈놓은 가게였다”고 말했다.

마지막 사례로 지난 2018년 김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가 소풍을 가서 “안아달라”는 아이를 밀쳤다는 얘기가 지역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글의 후폭풍은 엄청났다. 댓글에 A씨의 이름과 사진이 올라왔고, 어린이집 이름을 포함한 신상정보가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졌다. 그로부터 이틀 후 A씨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 하였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과 감정적인 이야기로 한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마녀사냥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은 ‘군중심리효과’로 나타난다. 군중심리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선택을 따라가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심리가 마녀사냥으로 이어져 나타나는 것이다.

풍선도 계속 부풀리면 터지듯이 부풀려진 소문은 견잡을 수 없이 커져 결국 비극을 불러오게 된다. 거짓된 정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아무런 잘못이 없는 한 사람이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확실하지 않은 주장에 성급하게 현혹되거나 선통되기보다는 그 주장이 합리적이고 정확한 정보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박수연 기자

드러나지 않은 우울증,
웃음 뒤에 숨겨진 우울증세.
‘가면 우울증’에 대해 알아본다.



“나는 전혀 우울하지 않아” 가면우울증

‘우울증’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얼굴에 어두운 그늘이 가득한 채로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지만 ‘우울감’이 없더라도 우울증일 수 있다.

가면우울증이란, 우울한 기분이 마치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 별로 드러나지 않는 우울증을 말한다. 밝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감정이나 화를 제대로 발산하지 못해 생기는 우울증의 일종으로, 표면적으로는 우울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밑바탕의 원인이 일반우울증과 같아 가면우울증이라고 한다. 겉으로는 우울한 기분이 들지 않고 오히려 활발해 우울증일 거라는 상상을 못하는 것이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정신질환 중 하나라고 한다.

가면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세로는 두통, 수면장애, 피로감, 입맛저하, 갈증, 심한 감정 기복 등이 있다. 멀쩡하게 잘 지내는 것만 같던 사람이 돌연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경우가 있다. 보통 우울증은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우울하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아도

잘 알아챈다. 일단 표정에서부터 웃지않으며 대화도 잘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인들이 적극적으로 대화를 청하며 옆에 와서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자 노력한다. 하지만 가면우울증은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심지어 가족들도 눈치를 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스스로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타인에게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어느 시점엔가 폭풍처럼 밀려오는 감정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다.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낸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속마음을 들이지 않으려 가면을 쓴다면 안전해질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더욱 외로워질 것이다.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주위사람들에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으니 용기를 내보는 것은 어떨까.

/박수연 기자

나도 모르게 내안에 우울증이 있진 않을까? 궁금한 사람들을 위한 자가테스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자꾸 슬퍼진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스스로 실패자라는 생각이 든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앞날에 비관적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일상생활이 만족스럽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죄책감을 자주 느낀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벌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나 자신이 실망스럽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다른사람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0. 평소보다 많이 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1. 평소보다 화를 더 많이 낸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2. 다른사람에게 관심이 없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3. 집중력이 떨어지고 결정이 잘안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4. 내 모습이 추하게 느껴진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5. 일할 의욕이 없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6. 평소처럼 잠을 잘 자지 못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7. 쉽게 피곤해진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8. 몸무게가 줄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9. 식욕이 떨어진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 건강에 대해 자신감이 없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1. 성생활에 대한 관심을 잃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합계				

전혀 그렇지 않다(0점),
가끔 그렇다(1점),
자주 그렇다(2점),
항상 그렇다(3점)

0~10점: 현재 우울하지 않은 상태
11~20점: 정상적이지만 가벼운 우울상태
21~30점: 무시하기 힘든 우울상태
31점 이상: 심한 우울상태

-치유와 성장의 공간-
대전보건대학교 상담실
위치. 9동 4층 건강관리실
상담시간. AM 09:00~ PM 18:00



낙태의 합법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낙태죄[abortion, 落胎罪]

: 자연분만기에 앞서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외에 배출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죄

지난 2017년, 산부인과 의사 A씨는 낙태 수술을 67차례 해준 혐의와 함께 '동의낙태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이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며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 헌법 불합치, 3명 위헌, 2명 합헌'으로 '헌법 불합치'라는 판결을 내렸고, 국회에 해당 법 개정을 2020년까지 완료할 것을 주문했다. 이로써 지난 1953년에 도입된 낙태죄 처벌조항은 제정 66년 만에 사라지게 되었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임신 초기에 해당하는 3개월(1주~12주) 이내 낙태를 허용할지 여부였다. 낙태죄 폐지 찬성 측은 12주 이내 중절수술을 금하는 것은 임신·출산 여부와 그 시기를 결정할 자유를 제한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또 다른 이유로 준비되지 않은 임신으로 인한 신생아 유기사건을 말했다.

지난 3월 말, 인천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땃줄이 달린 채 버려진 신생아가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인근 CCTV를 확보해 탐문 수사를 벌인 끝에 잡힌 범인은 20대 미혼모였다.

사건 당일 친할머니 집에서 혼자 아기를 낳은 그녀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며 "너무 무섭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아기를 버렸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한 달 동안 보도된 것만 봐도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기가 3명이나 있었다.

누구에게서,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든 세상 밖으로 나온 생명은 다 똑같이 소중하다고 하면서도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육아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동반되며 영아 유기사건과 같은 극단적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만약 임신과 출산을 온전히 당사자의 자유의사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면 이 같은 비극을 줄일 수 있을까?'란 의문에서 비롯된 낙태죄 폐지 논란,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은 '태아도 생명'이라는 구호 아래, 낙태죄가 폐지되면 태아의 인권은 보호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놓치 않으면 성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태아의 삶을 원천 봉쇄하는 일이며, 누구도 마음대로 태아의 삶을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만약 낙태죄라는 명백한 기준이 없어지면 생명윤리를 경시하는 사회풍속이 생겨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여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형법의 낙태죄 조항이 아니라 낙태로 내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이며 국가와 사회는 낙태 합법화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임신한 여성과 태아 모두를 지켜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또한, 반대 측은 이미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때 낙태를 허용하고 있어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찬반의 의견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처벌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기는 하지만, 즉시 효력을 잃으면 법적 공백이 생겨, 사회에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법 개정에 시한을 두는 것을 말한다. 이로써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개정안을 형법에 반영하지 않으면 낙태죄는 위헌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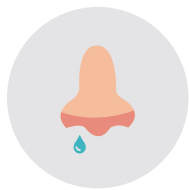
| 해외 현황

한편 해외에선 대부분 일정 범위 내에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허용사유도 확대하는 추세로, 1996년부터 2009년 사이 46개 국가가 허용사유를 확대했다.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 상당수가 태아 주수에 따라 허용범위를 다르게 하는 기간제와 절차주의 모델(상담, 숙려기간 등의 절차)을 사용한다.

| 법률 개정방안

우리나라의 기존 낙태죄 형법은 낙태한 여성과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모두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형법 269조는 '자기낙태죄'로,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이고,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시키면,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또는 '업무상 낙태죄' 조항이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 의학적, 우생학적, 윤리적 사유가 있으면 의사는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낙태할 수 있도록 일부 허용하고 있다. 현재 낙태죄 형법은 오직 여성과 의료인에게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때문에 남성에게도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책임을 지우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미혼모에 대한 배려 확대, 저소득층 부부들의 출산과 양육 지원, 안정적인 교육 정책 마련, 성·생명·사랑에 대한 올바른 교육 등의 사회적 제도를 갖춰야 한다.

또한 위헌판결로 결정되었을 경우, 개인의 신념 등으로 낙태수술을 거부하는 산부인과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은 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주장하면서 의료인의 결정권은 무시하는 역차별의 문제점도 가지고 있으므로 올바른 법률 개정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알레르기의 주범, 송홧가루!

해마다 찾아오는 송홧가루, 꽃가루 등 각종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계절이다. 매년 피할 수 없다면 맞서 극복하는 방법 밖에 없다. 알레르기에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시작되는 요즘 꽃가루나 송홧가루에 시달리고 있지 않으신가요? 알레르기가 있는 분이라면 더욱 공감하실 겁니다. 밖에 잠시 주차해둔 자동차에도 쌓여있고, 문을 조금만 열어놓아도 쌓이는 송홧가루에 대하여 알아보까요?

송홧가루란 소나무의 꽃가루를 말합니다. 곤충을 이용해서 번식하는 꽃과 달리 바람을 이용하여 수분하는 소나무의 번식 수단입니다. 형태는 노랑고 연두빛이 나는 고운가루이며 식용으로도 이용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송홧가루가 날리는 시기는 주로 4월 후반부터 5월에 많이 날리지만 6월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홧가루가 나오는 소나무 뿐만 아니라 자작나무, 오리나무, 밤나무, 참나무 등 꽃가루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송홧가루는 입자가 작기 때문에 눈이나 호흡기가 약한 사람들에게는 미세먼지만큼이나 조심해야 하는데요. 꽃가루 때문에 잠깐만 외출해도 눈이나 코가 따가워지고 목이 칼칼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송홧가루가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들어갈 경우 잘못된 면역반응에 의해 염증물질이 세포에서 분비되어 비염 등의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질환, 소화기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꽃가루로 인해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생기기도 하는데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천식이 있는 환자들에게는 더욱 심해집니다.

송홧가루 알레르기를 대처하는 방법은

먼저 주변을 항상 청소해야 합니다. 송홧가루는 미세먼지처럼 매우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방충망을 통해서도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석구석 쓸고 닦아줘야 합니다. 두번째로는 나무로 된 가구도 닦아주면 좋습니다. 가구의 앞, 뒷면도 깨끗이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번째로는 외출 후 가급적 빨리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세안하는 것이 가려움이나 비염반응을 막는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꽃가루 알레르기를 완화해주는 음식이 있습니다. 딸기, 연어, 사과, 녹차가 꽃가루로 인한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시켜준다고 합니다.

알레르기의 주범인 송홧가루에 안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염증을 잡아주는 비타민 P를 가지고 있어서 항균, 항염, 항암 작용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모세혈관을 강화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항산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장점은 송홧가루의 비타민P를 추출하여 전문적인 과정을 거쳐 약으로 만들었을 경우입니다.

봄이 끝나 꽃가루 날리는 시기도 끝난 것 같지만 나무에서 날리는 꽃가루는 6월 넘어서까지 날린다고 합니다. 여름이라고 안심하지 말고 건강을 위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김지은 기자

내 건강은 내가 챙긴다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건강 자가 진단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혹시 '특수검사'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생소한 단어이지만 보건인이기 때문에 혹시나 알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수검사'는 병력, 관찰, 움직임 검사에 대한 평가 후 손상된 관절에 대한 병리, 상태, 또는 손상의 특이적 형태를 규명하기 위해 필요하며, 각 관절에 특정한 질병이나 손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유용한 검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스로 할 수 있는 특수검사에는 어떤 검사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까요?

▲ 아플레이 긁기 검사 (Apley's scratch test)

검사방법
팔을 머리 뒤로 넘겨 어깨뼈 위모서리에 닿기
팔을 머리 앞으로 넘겨 어깨뼈 위모서리에 닿기
팔을 등 뒤로 넘겨 어깨뼈 아래모서리에 닿기
양성반응- 위 혹은 아래 모서리에 닿지 않음

▲ 팔 떨어뜨리기 검사 (drop arm test)

검사방법 - 어깨관절을 90° 쪽 위로 올린 상태에서 천천히 팔을 내리게 함.
양성반응- 팔을 천천히 내리지 못하고 떨어뜨림

▲ 팔렌 검사(phalen test)

검사방법- 앉거나 서서 손목관절이 최대한 굽힘 되도록 하여 두 손등을 완전히 접촉하고 1분간 유지
양성반응-엄지, 2, 3번째 손가락, 4번째 손가락 외 측면에 따끔거림과 저림

▲ 스웨터 손가락 징후 검사 (sewater finger sign)

검사방법- 앉은 자세에서 아래팔 안쪽이 천장을 향하도록하고 주먹을 쥐
양성반응- 손가락 전체가 굽힘 되지 않으며 어느 손가락의 면쪽이 굽혀지지 않음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특수검사들, 혹시나 검사 후 본인이 양성반응을 보인다면 빠른 시일내에 병원에 한 번 들려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문헌- 의학서적 「이학적 검사」
/김유민 기자



여름 골칫거리, 식중독!

더운 여름철에는 떨어진 면역력과 함께 식중독 증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식중독이란 식품의 섭취에 연관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독성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의심되는 모든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합니다. 흔히 발생하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미생물에는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 노로바이러스 등이 있습니다.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름에는 기온 상승으로 인해 식중독 발생이 쉬우므로 음식을 섭취할 때 유의해야 합니다. 요리하기 전,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며, 물은 끓여 마시는 것이 좋고 음식물은 익혀 먹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에 조심해야 할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조개류

여름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일부 바다에서 식중독균인 비브리오패혈증이 검출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조개류 먹는 것을 피하고 먹을 때는 충분히 익혀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육회

육회에는 살모넬라균 등 다양한 식중독균이 존재합니다. 특히 날 것으로 먹는 육회는 조리 단계에서 사람 손을 거쳐서 그만큼 오염되기 쉽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신선해도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어

식중독을 유발하는 리스테리아균, 특히 연어의 리스테리아균은 10도 이하의 냉장과 심지어 냉동환경에서도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에는 되도록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생크림 케이크, 빵

생크림 빵은 대부분 실온에서 보관하고 생크림 케이크도 대부분 진열용 냉장고를 이용하므로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생크림이 묻은 베이커리류의 경우 냉장 보관되어 있는 것을 구매하고 제조일과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구매한 당일에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고등어

고등어의 붉은 살은 쉽게 상합니다. 따라서 고등어는 사자마자 냉동보관을 한 뒤 요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에는 생고등어보다는 소금에 절인 자반고등어를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 김밥

김밥에는 여러 채소가 들어있습니다. 채소는 금방 상해서 식중독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김밥을 만든 뒤 3시간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쉽게 상하는 음식들을 조심하면서 건강한 여름방학을 보내시다!

/김지은 기자

출처: <https://blog.naver.com/qkrwn0715?Redirect=Log&logNo=221325380374>

여름, 마냥 방심할 순 없다

여러분 초여름의 햇살이 따갑게 느껴지는 6월이 왔습니다. 휴양지를 찾아 놓고 싶어지는 여름이지만 우리에게엔 여름철마다 찾아오는 위험한 질병이나 야외활동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열사병

먼저 여름하면 쉽게 발생하는 열사병이 있습니다. 고온의 환경에 오랜 시간 노출되거나, 더운 상태에서 육체노동이나 운동을 지속할 때 기상하부에 위치한 인체의 체온유지 중추가 그 기능을 잃게 되면 열사병으로 진행됩니다. 열사병은 갑작스럽게 발현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개 의식변화로 40°C 이상의 고열, 의식장애, 덥고 건조한 피부 등의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시에 가능한 빨리 체온을 낮추는 것이 질병의 악화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냉방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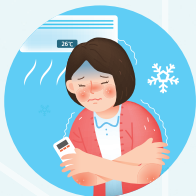
두 번째로는 현대의 여름이 만들어낸 냉방병이 있습니다. 더운 날씨 덕에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냉방이 지속될 경우 가벼운 감기, 몸살, 권태감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냉방병이라고 합니다. 어떤 질병을 가리키는 용어라기보다는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여러 질환군을 총칭하는 증후군의 일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기와 비슷한 증세가 많고 위장장애, 생리불순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실내온도는 대체로 22°C~26°C 사이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에어컨의 찬 공기가 직접 몸에 닿지 않도록 하고, 긴 소매의 덧옷을 준비합니다. 에어컨은 1시간 가동 후 30분 정도 정지하여 장시간 에어컨을 틀지 않도록 합니다. 냉방병은 우리 몸이 허약할 때 쉽게 걸리게 되므로 여름에도 꾸준한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로 건강을 관리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유행성 각결막염

마지막으로 여름철에 쉽게 걸리는 눈병으로 유행성 각결막염이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한 것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증세에 대한 치료와 함께 다른 사람에게 감염되는 것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도 전염을 피하려면 손을 자주 씻고, 특히 손을 씻은 직후가 아니면 손으로 눈을 절대로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전염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았다고 해도 환자가 만진 문고리나 물건에 묻은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이 만진 후 눈을 비비거나 만지기만 해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약을 다른 사람과 같이 쓰는 경우에도 전염되므로 반드시 자신의 것만을 사용하여 조심해야 합니다.

여름철 휴양지를 찾아 떠나는 것도 좋지만 건강을 생각하는 휴양을 떠나는 것은 어떠신가요?

/김지은 기자





축구의 매력에 빠져 보아요!

여러분은 축구하면 어떤 것이 먼저 생각나시나요? 대부분 월드컵을 떠올리실 텐데요. 월드컵 시즌에만 즐기는 축구가 아닌 평소에도 즐길 수 있는 축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접 경기장을 방문하여 즐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K리그가 있습니다. K리그는 한국프로축구리그로 1부리그인 K리그 1의 12팀과 2부리그인 K리그 2의 10팀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K리그에는 러시아월드컵 중 한국의 골문을 멋지게 지켜냈던 조현우 선수와 멋진 수비를 보여줬던 이용 선수 등 국가대표 선수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은 선수 2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포항스틸러스의 중원을 책임지고 있는 **이진현 선수**
각 나이대별 국가대표를 제치고 2018아시아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로 현재는 국가대표로 발탁되었습니다. 소속팀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대표로서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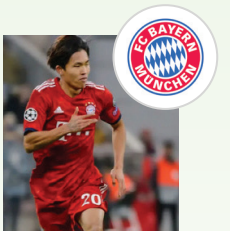
-서울fc의 최전방을 책임지고 있는 **조영욱 선수**
각 나이대별 국가대표를 모두 월반한 선수로 2016년에는 KFA 영플레이어 상을 수상했습니다. 99년생의 어린 나이인 만큼 미래가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주말에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가까운 대전에 있는 대전 월드컵경기장에서 대전시티즌의 경기를 관람하러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축구선수들의 꿈의 리그인 프리미어리그(잉글랜드)와 라리가(스페인), 분데스리가(독일) 등 여러리그가 있는 유럽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선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손흥민 선수, 기성용 선수, 이승우 선수 말고도 유럽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여러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선수들 중 두 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정우영 선수

독일 분데스리가의 전통강호인 바이에른 뮌헨에 소속되어 활약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포지션은 왕과 측면 미드필더이며, 99년생이라는 어린 나이에 꿈의 무대인 유럽연맹리그의 최강자를 가리는 UEFA 챔피언스리그를 경험한 선수로 한국 축구를 이끌어갈 선수입니다.



| 이강인 선수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의 발렌시아cf 소속 선수입니다. 포지션은 미드필더이며, 01년생의 어린나이에 발렌시아의 유소년 시스템을 거쳐 1군까지 올라온 선수입니다. KBS '날아라 슛돌이'라는 프로그램으로 7살 때부터 축구신동으로 알려졌습니다. 만17세의 나이에 프리메라 리가에 데뷔하며 한국 역대 최연소 유럽리그 데뷔 선수, 발렌시아 역사상 최연소 리그 데뷔 외국인 선수로 기록되었습니다. 귀화설이 나올 정도로 축구강국인 스페인이 탐내는 선수로 현재 국가대표에 발탁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성장이 무척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지금까지 어떠셨나요? 이번 여름방학은 모두가 함께 축구의 매력에 빠질 준비가 되셨나요?

/김기중 수습기자

여름대비 체중감량 프로젝트

햇벌이 째깍 내리쬘는 무더위 속 여러분의 옷차림은 어떠신가요? 이때다 싶어 자신의 몸매를 과시하는 분이 있는가하면 몸매를 드러내는게 두려워 이 무더위 속에서 공공 싸매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여름만큼은 모두 체중감량에 성공하여 자신감 넘치고 개성 넘치는 코디를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름대비 체중감량프로그램을 알아봅시다!

A 런지

1. 양손을 허리에 감싸고 약간 다리를 벌리고 선다.
2. 몸을 바로 세우고, 숨을 마시면서 크게 앞으로 한발 내딛는다.
3. 내디딘 다리의 허벅지가 땅과 수평을 이루거나 조금 내려갈 때 다리에 힘을 줘 퍼주면서 원위치 해준다.

<주의사항>

- 무릎이 발끝을 넘어갈 때 무릎에 부담이 갈 수 있으니 무게중심을 뒤꿈치 쪽에 실어 무릎 각도에 신경을 써줘야 한다.
- 뒷다리의 무릎은 땅에 닿기 전까지만 내려준다.
- 허벅지를 옆으로 더 멀리 돌수록 자극도 더 커지고, 효과도 상승한다.



B 플랭크

옆드린 자세에서 어깨와 팔꿈치는 수직으로 하고 양발을 세워주며 발의 보폭은 좁게 한다. 그 상태가 안정이 된다면 턱은 당겨서 목이 몸통과 일직선이 되도록 해준다.

<주의사항>

- 눈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상 제대로 자극이 가지 않는다. 수행하면서 이상하게 편안한 느낌이 든다면 잘못된 자세이다.
- 엉덩이가 너무 위로 향하고 있다-상체의 일직선을 잘 유지하지 못하여 골반이 위로 올라가 아치형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자세이다.
- 버티고 있는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해주어야 하며, 등 상부에도 힘이 너무 들어가면 승모근에 통증이 생길 수 있다.



C 스쿼트

1. 발을 어깨넓이로 벌려준다.
2. 허리를 곧게 펴고 팔을 앞으로 뻗으며 앉았다 일어난다.

<주의사항>

- 앉을 때 무릎이 발가락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게 해준다.
- 무릎이 발선상에 위치하게 한다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건강한 체중감량 비법에 대해 알아본다.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 동작을 소개한다.

The Wisdom of Solomon 18

우리는 열심히 일할(공부할)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하고, 어리석은 위험을 피해야 한다.
우리는 올바른 때에 그에 맞는 계획을 가지고 올바른 일을 해야만 한다.
열여덟 번째 여행을 떠나 보자. 솔로몬은 다시 시작하라(Start Again)라고 얘기한다.

For riches do not endure forever, / and a crown is not secure for all generations, / When the hay is removed / and new growth appears / and the grass from the hills is gathered in, / the lambs will provide you with clothing / and the goats will the price of a field. / You will have plenty of goat's milk / to feed you and your family / and to nourish your servant girls.

왜냐하면 부는 영원하지 못하다 / 그리고 왕관도 모든 세대들에게 확실하지 않다 / 건초가 제거되고 새로운 풀이 나타난다 / 언덕의 풀은 모아지고 / 양들은 너에게 옷을 제공할 것이고 / 염소는 들판의 가격을 제공할 것이다 / 너는 충분한 염소의 젖을 갖게 될 것이다 / 너와 네 가족을 먹이기 위해 / 네 하녀에게 영양분을 주기 위해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베면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풀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네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네 집의 음식이 되며 네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재물은 오래가지 않고, 면류관은 대대로 물려지지 않는다. 풀을 베면 다시 싹이 나니, 언덕 여기저기에서 풀을 얻을 수 있다. 양 떼는 옷 지을 털을 주고, 염소젖은 넉넉하여 너와 네 가족, 너의 여종들이 모두 먹고도 남을 것이다. (잠언 27:24-27)

[어휘]	endure: 지탱하다, 지속하다 secure: 안전한, 확실한	hay: 건초, 마른 풀 nourish: 영양분을 주다
------	--	-----------------------------------

우리는 실패했다고 실망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다. 재물은 영원하지 않다. 돈을 벌고 모으면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 되어 후손에게 이어지길 바라지만, 어느 날 다 잃게 되기도 한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다시 회복될 기회가 온다.

이처럼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많은 경제적 손실을 보는 시기도 있지만, 풀이 다시 자라듯 다시 회복될 기회, 다시 물질적인 풍성함을 누릴 기회는 계속해서 오게 된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

다시 자란 풀로 인해 양과 염소가 자라난다. 양의 털은 옷이 되고, 염소를 판돈으로 밭을 사게 된다. 염소의 젖은 양식이 되며 집에 거하는 다른 사람들도 먹이게 된다. 그러니 잠시 어려워 지거나 잠시 재물이 남아갔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다.

이제 2주 후면 종합시험을 보게 되고 1학기를 마치게 된다. 중간고사를 잘 봤다고 자만하지 말고 또 못 봤다고 실망하지 말라.

교양교육원 안남용 교수

독자참여퀴즈

1. 지역의 만4,5세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유아교육과에서 매년 개최하는 공연은? 2면 참고
2. 제42회 청운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한 학과는? 3면 참고
3. 인터넷(NET)과 영화(Flicks)라는 의미로 세계 최대의 유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는? 5면 참고
4. 우울한 기분이 마치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 별로 드러나지 않는 우울증은? 6면 참고
5.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선택을 따라가는 현상은? 6면 참고
6. 소나무의 꽃가루는 무엇일까? 8면 참고
7. 식품의 섭취에 연관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독성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의심되는 모든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은 무엇일까? 9면 참고
8. 더운 날씨덕에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냉방이 지속될 경우 가벼운 감기, 몸살, 권태감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9면 참고
9. 발을 어깨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허리를 곧게 펴고 팔을 앞으로 뻗으며 앉았다 일어나는 자세는 무슨 자세일까? 10면 참고
10. 정우영 선수의 포지션은? 10면 참고

순우리말퀴즈

‘오지랴’의 뜻은 무엇일까요?

- ① 앞가슴을 감싸는 부분 ② 씹씹이가 크다. ③ 참견이 심하다.

/김유민 기자

<지난호 퀴즈 정답>

1. 4년
2. 국제교류원
3. 목화
4. 알코올성 치매
5.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6. 성년의 날 (5월 20일)
7. 주휴수당
8. 책임감
9. 은구비공원
10. 자유롭게

<순우리말 퀴즈 정답>

1. ②
2. ③
3. ①

<지난호 정답자>

식품영양 4 이한솔
식품영양 4 오지원
치위생 1 임누리
식품영양 4 정다운

의무행정 2 배주영
의무행정 2 구은비
의무행정 2 박연주
치위생 4 박선영

임상병리 3 이찬민
식품영양 4 사모영

과 학년 이름

연락처

퀴즈는 신문사 앞 '독자참여함'과 '대전보건대학교 HiT 신문방송국' 페이스북 메시지로 참여 가능하니 정답과 함께 학과, 학번, 이름, 전화번호를 적어 보내주세요. 정답자에 한하여 추첨을 통해 상품권 지급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전보건대학교 신문은 원고를 기다립니다.



대전보건대학교 신문에서는 237호에 실릴 여러분의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사진, 시, 수필, 친구에게 전하지 못한 말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원고가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도 지급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간: 2019년 8월 30일(금) 18시
보내주실 곳: tnwl9424@hit.ac.kr 또는 신문사(8416호) 우편함

도서관소식

외국학술지 지원센터(FRIC)이란?

RISS FRIC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외국학술지 지원센터를 통해 10개 주제분야 31,900 여종 외국학술지, 1,280만 여편 논문을 무료이용

■ 이용 대상은?

- : 소속기관회원이라면 누구나 무료 복사 신청 가능
※ 10개 주제분야, 지원센터 소장자료에 한함
※ 신청비용 전액(우편요금, 복사비, IFM) 무료
※ 기관회원 인증을 위해서는 도서관 담당자의 승인이 필요

■ 신청 방법은?

- RISS(www.riss.kr)에서 해외학술지 논문 검색 시 '소장기관'리스트에 [무료]OO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를 확인 한 후 선택하여 신청하기를 누르면 신청 완료

국내 웹 DB자료 이용안내

연구나 과제에 참고하기 위해 논문을 찾아야 할 때는?

관심 있는 전공 분야의 최신 정보를 찾고 싶을 때는?

DBpia, KISS, e-article, KSDC를 이용해보세요!

국내 학회, 출판사, 협회 등에서 발행되는 다양한 분야의 학술자료들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도서관 사이트(lib.hit.ac.kr)에서 각 사이트로 접속하거나

RISS(www.riss.kr)에서 논문검색 시 제공처를 통해 확인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DBpia

earticle

KISS

KSDC DB

■ 문의: 042-670-9092(전자자료 담당자)

|신간안내 ※ 이외의 다양한 신착도서들이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질문하는 삶_류대성



나다운 일상을 산다_소노 아야코



여행의 이유_김영하



브랜드가 되어간다는 것_강민호



뿌리가 튼튼한 사람이 되고 싶어_신미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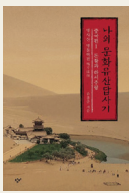
고만이 고만입니다_하지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_한수희



겹치말_유세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중국편1_유홍준



연필로 쓰기_김훈

기자는 글로 말한다.

올해 우리학교 신문사는 전년도보다 대폭 삭감된 예산으로 신문 인쇄부수를 줄이고 새롭게 디지털신문을 발행하는 등 많은 변화를 시도해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학우들의 소중한 신문방송비에 부끄럽지 않은 기사를 쓰기 위해 항상 뒤에서 묵묵히 신문사를 지켜가고 있는 기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한다.

신문사원증



편집국장
박수연

대전보건대학교 홍보센터 신문방송국

나는 왜 기사를 쓸까

나는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가, 좋아하는가, 언제 뿌듯해 하는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었지만 바뀐 환경뿐이었다. 여전히 나는 그대로였고 여전히 하고 싶은 일은 없었다. 그러던 와중, 신문방송국 모집공고를 보았다. 신문사 기자,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나의 글이 신문에 실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사실에 눈길이 갔고, 설레는 마음으로 지원서를 작성하였다. 처음 입사를 하게 되어 학교기사를 썼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선배들의 도움으로 수습기자로써 첫 기사가 신문에 실렸고 내 안의 무언가가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 뒤로 지금까지 수습기자에서 정기자로, 정기자에서 편집장으로 1년 반 동안 신문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적지 않은 시간동안 많은 기사를 썼지만, 항상 내가 쓴 기사가 신문에 나올 때 마다 가슴 벅차오르는 느낌을 받는다. 편집국장이 되면서 책임질 것도 많아지고 기사를 쓸 때마다 무게감을 느끼지만, 신문사 활동은 공허했던 나를 채워주고 하고 싶은 일을 찾아주었다. 또한 자부심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지금 기사를 쓰는 '기자'로서의 나의 모습 때문이 아닐까.

/박수연 기자

신문사원증



취재부장
김유민

대전보건대학교 홍보센터 신문방송국

어엿한 기자

신문사에 입사한지 어느덧 1년차. 처음 입사했을 때는 글을 써본 경험도 많이 없고 글을 시작조차 하지 못해 갈팡질팡했었다. 그래도 신문사 선배들과 멘토 선배의 많은 도움을 받아 기사를 완성할 수 있었다. 학교신문 기사는 기자가 원고를 다 쓰면 신문사 기자들의 피드백을 받아 수정을 거쳐 완성된다. 여러 편집회의를 거쳐 완성된 기사가 처음으로 학교신문에 나온 것을 보고 자부심이 생겼다. 이제 1년차에 접어들면 다양한 기사들을 써보았지만 아직도 신문이 나오면 항상 설렌다. 2학년이 되면서 과제나 시험으로 인해 바빠졌고, 기사를 쓰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기사를 보고 칭찬해주는 친구들이나 독자퀴즈에 나오는 기억에 남는 기사를 쓰는 질문에 내가 쓴 기사가 답변으로 실리면 뿌듯함을 느낀다. 현재는 취재부장이 되었지만 아직도 사진찍기에 있어 부족함이 많다. 사진에 대해 전혀 몰랐던 채로 시작한 기자생활. 지금은 취재 상황을 고려하여 카메라의 여러 기능과 촬영모드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 신문사 취재부장으로서 학교행사를 취재하며 촬영 때마다 사진에 대한 피드백을 수용하고 항상 배우는 자세로 취재에 임했기에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기사를 쓰는데 최선을 다하고 더 나은 사진을 찍는 등 많은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임할 것이다.

/김유민 기자

신문사원증



수습기자
김기중

대전보건대학교 홍보센터 신문방송국

새로운 시작

설레는 마음으로 입학하여 낯선 환경에 적응하던 중 학교계사판에서 신문사 수습기자 모집공고를 보고 지원하였고 면접을 거쳐 신입기자로 채용되었다. 고등학교 때 진로를 고민했을 정도로 하고 싶었던 기자였기 때문에, 최종합격 소식을 들었을때 정말 기쁘고 앞으로가 기대되었다. 처음 신문사에 입사했을 때는 많이 어색했지만 동기와 선배들의 도움으로 금방 적응할 수 있었다. 첫 편집회의 때 편집 프로그램을 다루는 방법, 기사 작성법을 배웠고 첫 기사를 배분받아 작성하였는데 이전 선배들이 쓴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하였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았다. 신문이 발행되어 내가 쓴 기사가 실려 있는 것을 보니 뿌듯하였다. 체육대회와 축제기간에 처음으로 취재를 하였는데 핸드폰이 아닌 DSLR카메라로 처음 찍어보는 사진이라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고, DSLR카메라를 다루는 것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이번에 참가한 첫 번째 아이디어 회의에서 생각해온 아이디어가 채택되어 첫 기획기사를 작성하게 되었다. 기획기사 작성은 시작부터 기사 본문까지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었지만 선배들의 도움으로 큰 어려움 없이 작성할 수 있었다. 한 학기 동안 신문사 활동을 통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었다. 아직은 서툰과 부족하지만 간사님과 선배들의 도움을 받으며 내년에는 멋진 기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기중 수습기자

신문사원증



사회문화부장
정나라

대전보건대학교 홍보센터 신문방송국

대전보건대신문사 41기 기자로 산다는 것은

기자(記者, journalist), 신문·통신·잡지·방송 등의 분야에서 취재·편집·논평 등을 담당하는 사람.아직도 누군가 나에게 정나라 '기'자'라고 하면 어색하다. 언제 이런 일을 꿈꿔보기는 했을까. 그런데 지금은 신문 지면 한쪽 전체를 기획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어엿한 사회문화부 부장기자가 되어 있다. 기사를 써본 거라곤 초등학교 때가 전부인 내가 언제 이렇게 많은 기사를 쓸 수 있는 기자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나는 그 답을 사람에게서 찾았다. 신문사 입사 후 첫 기사에 대한 부담과 긴장에 원고 마감일 새벽까지 고민하면서 쓰고 있을 때, 새벽 2시에 질문해도 답해주시고 함께 고쳐주셨던 멘토 회진 언니. 처음 들어온 신문사가 어색해 낯가리고 있을 때 언제나 먼저 인사해주고 함께 이야기 할 수 있게 도와준 지금은 편집장이 된 수연이. 단순히 신문사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신문사 기자들의 사적인 고민에 대한 상담과 지지를 해주시는 수지 간사님. 이전에는 기껏해야 취미로밖에 즐길 수 없었던 사진을 학교 공식 SNS에 올라갈 정도로 촬영기술을 가르쳐주신 홍보센터 세진 선생님. 마지막으로 함께 취재 할 때마다 언제나 즐거웠던 취재부장이 된 유민이와 같은 시기 수습기자 동기로 입사해 서로 의지할 수 있었던 보도부장이 된 지은이. 이 사람들 덕분에 지금 나는 후배 기자들에게 다시 멘토가 되어 받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여전히 부족하고 기사를 쓰는 건 아직도 머리가 아프고 어렵다. 하지만 이 사람들과 함께하기에 지금, 이 신문사 기자생활이 너무나 감사하고 즐겁다.

/정나라 기자

신문사원증



보도부장
김지은

대전보건대학교 홍보센터 신문방송국

어쩌면 터닝포인트

나의 오랜 친구이자 신문사 기자인 유민이를 통해 신문방송국에서 수습기자를 추가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신문사에 바로 지원하였다. 면접과정을 거쳐 신문사에 합격을 했다. 대학생살이 바빠지길 바랐던 나는 신문사에 들어와서 정말 뜻대로 바쁘게 지내왔다. 솔직히 학과 활동과 병행하기에 버거웠고 버티기 힘들었다. 하지만 신문사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기사 작성에 오류가 없는지 수없이 읽고 편집회의 때마다 항상 긴장하며 참여했다. 그 결과 수습기자임에도 불구하고 차곡차곡 자기 몫을 잘 해나가는 기자로 성장했다. 1교시부터 뻑뻑한 시간표로 가득찼던 하루하루를 무사히 보내고 어느새 2학년이 되었고 신문사 보도부장 김지는 기자가 되었다. 2학년을 맞이하는 심정은 졸업과 취업을 앞둔 취업준비생과 마찬가지로였다. 게다가 학과 임원까지 맡게 되었고 여러 가지로 책임감과 부담감이 몰려오던 시점에 신문사 활동도 바쁘게 겹쳐버렸다. 심적으로 힘든 일까지 쌓이다보니 신문사 기자활동을 포기하고 싶었다. 포기하기 직전에 엄마와 대화를 나누었다. 엄마는 “네가 그 결정을 하고 뒤돌아서서 아쉬운 마음이 들 것 같니? 그렇다면 그 마음이 '후회'란다. 후회할 것 같다면 포기하지마.” 라고 말씀하셨다. 엄마의 그 말 한 마디가 해답이 되었고 끝내 포기하지 않게 해주었다. 이 선택 이후 학교생활에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는 힘이 되었다. 어쩌면 쓰러져가는 나를 붙잡아 준 것은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신문사 활동 덕분이 아닐까 싶다.

/김지은 기자

신문사원증



수습기자
오다영

대전보건대학교 홍보센터 신문방송국

나는 기자다

간호학과 선배인 신문사 기자 언니의 소개로 신문사 기자 모집공고를 알게 되었다. 날짜를 착각해 마감날짜보다 일주일이나 전에 급하게 자필 지원서를 냈다. 급하게 썼지만 진심을 담은 글이었기 때문일까 지원자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면접을 보라고 연락이 왔다. 설렘과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면접을 봤고 다행히 합격했다. 수습기자에게 주어진 첫번째 임무는 작년에 발행된 모든 신문을 읽고 가장 인상깊은 기사를 찾아 모두의 앞에서 비평을 하는 것이었다. 발표를 하면서 쓰고 싶은 기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 첫 편집회의였던가? 기사 작업을 하기 위해 들어간 구글 드라이브 공유폴더 안의 세계는 내 눈을 반짝이게 만들었다. 서로가 하나의 글을 동시에 수정하고 편집하고, 실시간으로 피드백하는 작업은 매우 흥미롭고 신기했다. 선배들의 빠른 피드백과 글을 수정하는 능력은 수습기자가 보기에 정말 멋있었다. 그런 선배들의 모습을 닮은 기자가 되고 싶어졌다. 어느새 대학생활 한 편에 신문사가 크게 자리잡고 있다. 글을 쓴다는 건 항상 창작의 고통이 따르지만 좋은 기사, 좋은 제목이 나왔을 때의 짜릿한 기분은 잊을 수 없다. 신문사의 기자로 활동한 기억은 대학생활 중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될 것이다.

/오다영 수습기자